https://doi.org/10.30775/KMES.55.3.35
음악교육연구 제55권 제3호 pp. 35-55 (2026년 8월) ISSN 1229-4179 (Pri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55, No.3, (August, 2026) ISSN 2713-3788 (Online)

한국의 음악교육자 이홍수의 생애사 연구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Korean Music Educator Hong-soo Lee

김기수*
Gi-Su Kim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음악교육과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역사적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홍수의 생애사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위대한 음악교육자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발굴하여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다. 아울러 그의 업적이 음악교육의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방법에서 세계적으로 빛나는 하나의 보석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바람이다. 여기서는 질적 연구 방법에 준하여 연구 참여자인 이홍수와 연구자가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그가 타계 때까지 약 30년 가까이 그의 삶과 만남에서의 대화, 그가 직접 건네준 그의 생애 자료 등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그의 생애사는 유년기와 청소년 시기, 사범학교 시기, 교직 초기와 그 후의 시기, 유학 시기, 대학 교수 시기, 정년퇴임 이후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기에 나타난 그의 생애 이야기는 한국의 음악교육사와 한국음악교육학회의 발전사에 귀중한 사료를 제공하며, 후대 음악교육에 영향을 끼친 인물과 그의 교육사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제어: 이홍수, 생애사 연구, 음악교육, 한국음악교육학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life history of Hong-soo Lee, whose work is central to both the history of Korean music education and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thereby highlighting his significant pedagogical contributions and bring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to Korea's legacy in music education. In addition, his achievements are expected to serve as a luminous contribution for both theoretical scholarship and practical methodologies in global music education. Here, in accordance with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presents a chronological account of Hong-soo Lee's life, documented by the researcher, his longtime student. The inquiry is grounded in nearly thirty years of personal dialogues from graduate school until his death, complemented by primary biographical records entrusted to the researcher. His life history is divided into the period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period of education college, the early and later period of teaching, the period of studying abroad, the period of teaching at university, and the period after retirement. The stories of his life during these periods provide valuable historical records for the history of music education in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nd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exploring the characters who influenced music education in the future and his educational ideas.

Key words: Hong-soo Lee, study of life history, music education,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 First author, E-mail: gisu1027@cue.ac.kr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 Jinyangho-ro 369beon-gil, Jinju-si, Gyeongsangnam-do, South Korea

Received: 31 May 2026, Reviewed (Revised): 30 June 2026 (12 August 2026), Accepted: 21 August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Ⅰ. 서론

2026년 2월 11일 아침 9시 35분경 나의 핸드폰에 ‘이홍수 교수’로 저장된 이름으로 뜨는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나는 “스승님, 이른 아침에 웬일로 전화하셨어요?”라며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들려온 소리는 “선생님, 이홍수 교수님이 가셨어요!”라는 사모님의 나지막한 떨림의 목소리였다. 한국 음악교육의 거목(巨木) 이홍수(李弘守, 1944. 3. 8. 출생) 교수가 별세했다는 부고 소식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낮 12시 분당의 어느 식당에서 몇 명의 제자 및 후배 교수들과 점심은 물론이고, 이후에 2시간 넘게 담소까지 나누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1년 넘는 암 투병으로 그의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의 정신은 평소처럼 온전하여 그날 함께한 이들에게 최근 그의 상황을 소상히 알리기도 하고, 한국의 음악교육과 평생 몸담아왔던 ‘한국음악교육학회’에 대한 염려와 바람 등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종말은 예기치 못한 때에 온다’라는 옛 현자(賢者)의 말처럼, 이홍수 교수의 별세 소식은 정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2026년 2월 11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음악교육의 큰 별이자 거목이 타계한 한국 음악교육사와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슬픔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홍수[1]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재직하면서 음악교육의 학문적 이론의 확장과 현장의 실천을 몸소 행함으로써 한국 음악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크게 이끈 인물이다. 한국 음악교육사 자료에 근거해 볼 때, 1980년대까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음악교육철학에 관심을 보이거나 소개한 이들은 있었지만, 이홍수처럼 그렇게 긴 시간에 동안 열정을 가지고서 음악의 심미주의(審美主義, aestheticism) 철학과 사유(思惟)를 계속해온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1990)은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즉 음악교육 본질을 궁구하던 많은 음악교육자와 음악학자는 물론이고 대학교와 대학원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그의 음악교육 철학적 소신이 고스란히 담긴 ‘음악 교육론’의 일종으로 그 당시 많은 음악교육 대학교와 대학원의 주교재로 사용되었었다. 그때부터 음악교육과 관련한 그의 행적은 ‘한국음악교육사’와 ‘한국음악교육학회’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의 심미주의(審美主義) 음악교육철학은 한국음악교육사에서 ‘느낌(feeling)의 음악교육’이라는 새로운 음악교육으로의 전환을 열게 하였다.

이홍수는 음악교육자로서 혹은 학자로서 필생의 연구과제는 ‘음악교육의 본질’ 궁구

1) 연구자는 이홍수 교수의 제자이다. 그런 만큼, 이 글에서 그를 ‘이홍수 교수’라고 표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독자와 이 글이 논문인 점을 고려하여, 이후부터는 인용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홍수’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함에 있었다. 그는 미국 유학 중에 1970년대부터 유행하던 리머(B. Reimer)의 '심미주의' 음악교육철학에 매료되어 누구보다도 이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홍수만의 음악 심미주의 교육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어떤 강좌나 어떤 강연에서든 간에 음악교육의 본질에 관한 끊임없는 철학적 사유를 강조하며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즉, '음악은 무엇인가, 음악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음악교육이 왜 예술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음악교육이 길러야 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등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심미적 이성인'과 '느낌(feeling)의 교육',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음악교육, 즉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의 음악교육'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이홍수는 한국음악교육사에서 심미주의 음악교육의 대명사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의 담론은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국 음악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연구는 한국 음악교육사와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역사적 흐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홍수의 생애사를 연구하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들의 삶의 전체적 모습을 조망하여 그 정체성을 사회문화적 특수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Kim & Jeong, 2021, p. 233). 그 주제는 주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의 정체성, 유명인이나 탁월한 성취를 거둔 인물의 생애,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 사람의 삶과 사회문화적/구조적 문제, 특정한 시기에 겪은 삶과 경험의 의미"(Kim & Jeong, 2021, p. 234) 등이 해당한다. 김형숙과 문지원(Kim & Moon, 2012)은 교육학에서 생애사 연구를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살아온 삶 속에서 겪는 경험과 성장, 그리고 변화라는 교육학의 핵심 원리와 범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음악교육 역시 이러한 교육학의 원리와 범위 안에서 행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성장, 그리고 삶에서의 향유라는 음악교육학의 핵심 원리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유철인(Yoo, 1998)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현재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를 해석하고 정당화하고, 과거의 해석은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떤 인물의 생애사 연구를 접하는 사람들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과거 경험을 어떻게 뒤돌아보고 있는지,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의 삶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곧 이홍수의 생애사 연구는 이홍수라는 한 개인과 그가 속했던 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게 할 것이란 것이다. 그리고 최영신(Choi, 1999)은 생애사는 어떤 특정의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룩한 것으로, 그것은 개인과 사회를 통합하는 연결 매체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 만큼, 이홍수의 생애사는 이홍수라는 한 개인의 생애 사건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음악교육과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역사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Kim, 2020, 2022). 곧 이홍수가 보냈던 유소년기와 청소년 시기, 사범학교 시기, 교직 초기와 그 후 시기,

유학 시기, 그리고 대학교수 시기,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의 삶 등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런 만큼, 이 연구는 한국을 대표할만한 음악교육자 이홍수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가 보낸 일생의 시간적 단면 사건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가 왜 그토록 철저한 심미주의 음악교육 철학자가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에 어느 정도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생애사 연구인 이 연구는 이 글을 만나는 이들에게 이홍수라는 한 작은 인간이 가졌던 음악 사랑과 교육 열정 및 실천 과정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고, 나아가 한국음악교육사의 한 음악가로서, 교육자로서, 철학자로서, 실천가로서의 그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연구는 우리 한국에도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위대한 음악교육자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발굴하며, 세계적으로 알리어 그 업적이 세계음악교육사에서 하나의 영롱히 빛나는 보석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하나의 유의미한 사료(史料)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인 이홍수를 1997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의 '음악교육원론'이라는 강좌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이홍수의 나이는 53세 정도였다. 연구자는 그때 처음 그의 주요 음악교육 철학적 이슈였던 '심미적 음악교육'에 관해 들었다. 그의 강의 방식은 '왜'라는 질문과 그것에 답하는 문답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는 학생들이 철학적 사유 패턴을 형성하기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연구자에게도 영향을 끼쳐 대학교수로 있는 2012년부터 지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석사과정 때에는 논문 주제가 '초등학교의 가창력 신장'이었기에 다른 가창 전공 교수로부터 지도받았다. 그래서 석사과정 3년 동안은 그와의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았다. 다만, 그 당시 우리나라 음악 교육계를 대표하는 심미주의 음악교육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연구자와 이홍수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2002년 3월 박사과정에서 지도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연구자는 30대 초반이었고, 이홍수는 57세 정도였다. 이 시기는 그의 대학 생활과 사회적 활동의 전성기를 맞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박사과정 논문 주제가 '듀이의 미적 경험'이었기에 지도 교수와 학생으로서의 관계는 친밀감을 더했고, 서로의 관심사인 음악교육 철학적 논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홍수는 제자들과의 모임을 좋아했다. 그래서 졸업한 제자들과 함께하는 '또보미'라는 모임 단체를 만들었다. '또보미'는 순우리말로 '또 보다'라는 뜻으로, 대상을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또 보고, 또 보아야 한다'는 이홍수의 철학적・학문적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이홍수의 호(呼)인 '우관(又觀)'에서 따온 것이다. 이 모임은 이홍수의 음악교육적 신념이 고스란히 담긴 '음악심미연구회(Aesthetic Research Society of Music)'라는 조직과 병행하였다. 이 단체와 모임은 이홍수가 80세 되던 해까지 계속하며 1년에 1~2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이 모임에서 음악교육의 철학적 연구와 더불어 살아생전의 이홍수 생애사의 많은 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 이홍수가 보냈던 어린 시절과 초・중등교사 시절, 그리고 유학 시절, 대학교 교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염원하는 음악교육의 당위성과 본질, 그리고 앞으로 음악교육자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使命) 등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이홍수의 생애사에서 사적인 이야기는 그의 대학교수 정년퇴임 이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연구자는 2012년 대학교수로 있으면서도 한 학기에 두세 번 정도는 만남을 지속하였다. 거기서 서로는 사사로운 일상 이야기는 물론이고 스스럼없는 인간적인 관계와 학문적 대화까지 이어갔다. 이러한 만남의 관계는 그가 타계하기 전날까지 이루어졌다. 그만큼, 이홍수와 연구자는 사제지간(師弟之間)의 깊은 정(情)을 나누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눈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은 1997년 연구자의 석사과정에서부터 이홍수의 대학교수 정년퇴임 이후 사제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면담, SNS 대화, 사진, 강연 녹화 등을 참고하였으나, 특히 연구 참여자인 이홍수가 대학교수 정년퇴임 때 작업한『又觀(우관) 이홍수 교수 정년 기념문집 '더불어 금(琴)을 탈 때'』[2]에 담긴 "'음악교육 40년' 회고한담(回顧閑談)"을 거의 사용하였다. 회고한담(回顧閑談)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책에서는 '대담/정리: 김명숙・문경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홍수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쓴 것이었다. 연구자는 이 사실을 두 사람에게서 확인하였고, 이후에 이홍수 자신에게서도 직접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이홍수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수로 정년퇴임 때까지의 생애사가 담겨 있다. 이홍수는 타계 얼마 전에 이 책에 담긴 원본 사진을 연구자에게 직접 건네며, 그때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홍수는 그의

2) 이 책의 저작은 2009년 8월 이홍수의 대학교수 정년퇴임을 위해 1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이홍수 자신이 직접 주도하였다. 하지만, 이 책의 구성과 완성에는 준비위원장을 맡은 연구자와 이홍수의 제자들, 그리고 이홍수의 동료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이 책에는 '정년기념문집, 더불어 금琴을 탈 때, 기념문집간행위원회 엮음, ㈜교학사'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 책의 출간은 당시에 이홍수가 음악 교과서 작업을 교학사와 손잡고 하고 있었기에 그 고마움의 표시로 출판사가 임의로 해준 것이었다. 이 책은 당시에 시중에 배포되지 않았다. 그때 이 책이 대중에게 보급되었더라면, 이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이 책의 인용과 참고문헌에서는 '이홍수(Lee, H. S.)'로 하였음을 밝힌다.

음악 인생사를 그의 제자인 연구자가 어느 정도 정리해 주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홍수의 대학교수 정년퇴임 이후부터 타계 전까지의 자료와 분석은, 우선 그의 사적인 생활을 담은 테니스와 거문고 사진 자료, 그리고 1년에 1~2번 정기적인 제자 모임인 '또보미' 만남에서의 사진과 이야기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그의 대외 활동은 2017년 음악교과서 교재 악곡을 창작을 위한 '한국교육음악창작인회'라는 단체를 창립하여 초대 공동회장에서부터 그가 타계하기까지 활동했던 시기의 사진과 이야기를 참고하였다. 이홍수는 대학 정년퇴임 이후에도 그가 걸었던 삶을 연구자와의 만남과 제자들 모임 등에서 종종 이야기하였다. 그런 만큼,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실제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그와 가진 진솔한 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 및 진실성 확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인 이홍수와의 관계는 연구자의 대학원 시절에 스승과 제자로 맺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바로 사제지간(師弟之間)의 관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무려 3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의 정년퇴임 이후에도 매 학기 2~3번 정도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간의 오고 간 전화와 문자, 그리고 메일 등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았었다. 그야말로 둘은 웬만한 친구 관계 이상이었다. 그러는 중에 연구자가 이홍수의 음악 교육적 업적을 정리하기를 바랐었고, 이홍수는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의 진정성을 위해 이홍수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과 직접 건네준 자료를 바탕으로 그 곁에서 30년 가까이 함께한 그의 제자인 연구자가 진솔하게 정리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인 이홍수는 살아생전에 연구자와 함께 그의 생애사 연구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는 중에 그의 제자인 연구자가 그의 생애 가운데 음악 교육사적 행적을 정리하길 아뢰었을 때, 이홍수 자신도 그렇게 하길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홍수가 타계한 이후, 연구자는 이홍수 생애사 연구 의향을 그의 부인과 아들에게 고하였고, 그들은 동의와 감사로 응해 주었다. 이로써 이 연구와 관련한 연구의 윤리적 고려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결과

1. 유년기와 청소년 시기

연구 참여자인 이홍수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남쪽 자락에 있는 현내리에서 태어났고, 울진군 후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셨고, 아버지는 아주 젊은 나이에 별세하여 사진 속에서만 그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였다. 이홍수의 음악적 기질과 재능의 탁월성은 아버지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자는 그의 대학 강단에서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다.

> 어머님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버지는 청년 시절에 남달리 노래를 잘 부르셨대요. 삼촌도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는데 청년 시절에 이미 오페레타를 작곡하시는 정도이셨고, 고모님도 노래를 아주 잘 부르셨으니, 그러고 보면 나와 내 자식들이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닌 것이지요(Lee, 2009, p. 150).

이홍수의 초등학교 시기에는 연극의 흥미와 시적 흥미와 재능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은 종종 그의 대학 강단에서 이야기하곤 하였다. 연구자는 대학원 시절에 이홍수가 “배꼽을 쑥 내밀고 부끄럽지도 않니 너 호박아(?)”라는 시구(詩句)가 들어가는 ‘호박’이라는 시를 즐겨 읊던 강단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는 음악을 탐색하기 전에 시를 보라고 하였고, 모든 예술의 씨앗은 시라고 하였다. 그는 참으로 시를 좋아하였다. 그는 강연이나 창단식 자리에서 타인의 시나 자작시를 종종 읊조리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음악교육자가 되지 않았으면 시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밝히기도 하였다.

> 연극을 가르쳐 주신 4학년 때의 이원태 선생님과 시(詩) 쓰기를 가르쳐 주신 6학년 때의 이시우 선생님이 가장 뚜렷이 기억에 있어요. 이원태 선생님은 우리에게 ‘홍길동’, ‘글을 배우자’ 등을 가르쳐 학예회에서 연극을 하게 하셨지요. 이시우 선생님은 시와 산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셨고, 시를 위해 한 낱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지,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낱말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학급 어린이들이 졸업할 때 저마다 ‘나의 문집’을 품에 안고 가게 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선생님들이었는지, 놀라워요.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3행의 짧은 시 ‘호박’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Lee, 2009, pp. 150-151).

이홍수는 중학교 때 브라스밴드에서 트롬본을 배웠다. 그때의 활동은 그의 인생사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하였다. 사실, 1950년대 말 당시의 한국은 아직도 6.25 전쟁의

폐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한국의 음악교육 환경에서 그가 악기를 만나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그에게 참으로 행운인 동시에, 이후 그의 진로를 음악교육자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 당시 후포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병설이었는데 고등학교 음악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모양과 소리가 얼마나 놀랍던지요. 그래도 용기가 없어 저만치 서서 구경만 했지.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마침 그 해에 고등학교 밴드부 형들이 중학생들의 가입을 허락한다고 해서 나도 밴드부에 들어갔고, 트롬본을 배웠지요. “이 녀석 조금 배웠는데도 잘 부네.”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요. 그 경험은 그 후 사범학교에 진학해서 음악 활동을 하는 데에 단단한 바탕이 되었지요(Lee, 2009, p. 152).



[Figure 1] Hong-soo Lee, a middle school student



[Figure 2] Hong-soo Lee in the middle school band

2. 사범학교 시기

이후 이홍수는 사범학교(당시 초등교사 양성기관, 현재는 교육대학교로 변경)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다양한 음악 활동과 경험뿐 아니라 음악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하였다. 여기서 그는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교과목을 접하였고, 특히 음악을 더 심화하였다. 이홍수는 비록 교육적으로 열악한 조건과 환경이었지만, 이 시기에 그의 음악성을 본격적으로 꽃 피울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Figure 3] Hong-soo Lee in the school of education
(Second row, from the right to the second)

강릉사범학교에서 3년 동안 받은 박재훈 선생님의 음악 지도는 내게 음악의 날갯짓을 시작하게 하셨고, 시인으로 국어를 담당하셨던 윤명 선생님, 서예가이셨던 이윤우 국어 선생님, 미술을 가르쳐 주신 오홍종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의 가르침은 내 교육 인생에 소중한 지침이 되었지요. … 박재훈 선생님으로부터 먼저 코르위봉겐으로 시창을 배웠지요. 풍금을 배우고, 혼자 피아노를 연습했고, 합창부와 브라스 밴드부에서 음악 활동을 했지요. 시창과 풍금은 기본으로 배웠고, 피아노는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연습했는데, 연습실에 한 대밖에 없던 피아노는 항상 여학생들 차지여서 남학생들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만져보고는 했지요. 그 추웠던 겨울에도 늦은 밤에 손바닥을 비벼 온기를 일으키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서 가졌던 행복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도 마음껏 연습할 수 없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스스로 안타까워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교육 대학과 사범대학 음악연습실은 천국이나 같지요. 합창과 브라스밴드 활동은 나에게 음악을 만나게 한 소중한 기회였고,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나는 악곡에서 주로 대선율을 담당하는 악기인 유포니움에 매력을 느껴 그걸 선택했지요. 수자(J. Sousa)의 <워싱턴 포스트 행진곡>을 비롯한 많은 행진곡과 주페(F. von Suppe)의 <경기병 서곡>, 탱고 <라 컴파르시타> 등을 연주했지요. 강릉에서 열린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강릉- 비롯하여 양양, 묵호, 정선 등지로 연주 여행을 다녔지요. 그때 음악은 우리에게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한 친구였어요. 내가 지금 음악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건 그때 갖추어졌을 거예요(Lee, 2009, pp. 153-154).

3. 교직 초기와 그 후의 시기

이홍수는 강릉사범학교를 졸업하던 1962년에 강원도 묵호(현재 동해시)의 동호초등학교(그 당시는 동호국민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도교육위

원회에 당시 발령자 중에서 음악 잘 가르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묵호의 초등학교 음악 열기는 대단하였다. 이홍수는 이 시기에 피아노 연습에 몰두하고 여러 합주부를 운영하였다. 그러면서 합주곡 창작 및 편곡 공부도 하였다. 심지어 그는 그 학교 교가를 직접 작곡하기도 하였다. 그런 만큼, 이 시기는 그의 음악적 실기 능력을 크게 신장하게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피아노를 내 교실로 옮기고 피아노 연습에 몰두했고, 합창부와 리듬악기 합주부, 관악 합주부 등을 열심히 지도했지요. 그리고 학예회에 합주부들을 함께 출연시켜 큰 규모의 기악합주를 지휘하고, 합창도 지휘했지요. 그러는 동안 다양한 악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작곡과 편곡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무슨 일로 몇 년 동안 묵호에 와 계시던 피아니스트 성 모씨를 찾아가 피아노 레슨을 받았어요. 그분은 일본의 무사시노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평소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다가도 레슨 때에는 혹독하게 반복 연습을 시키고는 했어요. 그때 나는 음악 연습의 이중성, 그 엄격함과 유연함, 정연함과 자유로움의 필요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낸 동호초등학교의 3년 생활과 음악 공부, 가르친 학생과 이끌고 도와주던 선배 선생님들 모두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학교 교가를 작곡했던 일도 내게 아주 뜻있는 일이었고요(Lee, 2009, pp. 154-155).

그 후 1965년에 이홍수는 서울로 전출하여 계속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타 대학교 입학과 군대 입대해서 통신부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복무하였다. 당시 이런 부대는 꽤 똑똑한 사람만 복무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홍수는 음악뿐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군대를 퇴역한 후, 진로를 고민하다가 계속 음악을 공부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는 중에 교육부(그 당시는 문교부) 음악과 편수관이었던 정세문 선생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였다. 그 당시 정세문 선생은 한국의 음악교육을 총괄할 뿐 아니라 한국의 음악교육과 함께 교육 전반을 아우르고 있었다. 이홍수는 정세문 선생의 권장으로 음악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이홍수는 정세문 선생을 도와 한국의 음악교육 주도와 '한국음악교육학회' 일을 함께하였다.

> 1965년, 서울로 전출하게 되어 대왕초등학교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했고, 한편으로는 국민대학교 2부 상학과에 입학해서 경제학과 경영학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지요. 그러다가 육군에 입대해서 육군본부 통신부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복무하고, 서울휘경초등학교로 복직했어요. 그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당시는 은행이나 기업체들이 한창 확장되던 때라 작정만 하면 전직이 가능해서 직업을 바꿀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음악'과 '교직'을 놓아버릴 수가 없었어요. 고심 끝에 전직을

포기하고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했어요. 음악을 계속하기로 작정했을 때 우연히 교육부 음악과 편수관이셨던 정세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지요. 정세문 선생님은 내가 사범학교에서 박재훈 선생님으로부터 음악을 배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과 지휘하는 모습, 수업하는 모습을 살피시면서 내 능력을 점검하셨어요. 그리고는 칼오르프소녀합창단(후에 한얼소녀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꿈)의 지휘를 맡기시고, 중등음악교사 자격시험을 보도록 권하시는 한편, 더 공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 74년에 금호여자중학교로 옮겨갔어요.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한편, 한얼소녀합창단 지휘와 한국음악교육학회 부총무 일을 맡아 했고, 교육부의 편수 업무를 도왔어요. 정세문 선생님은 문교부 수석편수관이 되시면서 당신이 담당하셨던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 업무 일부를 내게 맡겨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세문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이성재 교수님과 정재동 교수님을 찾아가 화성학과 대위법, 작곡법, 관현악법 등을 배우고, 꾸준히 피아노 연습을 했지요. 그리고는 7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시험을 보았어요.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에 11명이 지원했는데 웬일인지 나 혼자 합격했어요. 당시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전공별 정원을 두지 않고 100명을 전체 정원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합격자를 내지 못한 전공도 여럿 있었지요. 그때부터 음악대학과 사범대학을 오가면서 이성재, 정회갑, 장사훈, 박노경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에게서 음악을 배우고, 이홍우 선생님과 여러 교수님에게서 교육학을 배웠지요. 정회갑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학생들의 음악적 환경이 음악교육의 목표 성취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76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요. 이렇게 71년부터 83년까지 계속된 합창단 지휘와 연주회, 음반 녹음작업,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편찬, 한국음악교육학회 총무 일, 음악교육연수회, 동요작곡 강습회, 대학원 석사과정 등은 내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도록 요구했고, 결국 그런 활동과 공부가 내게 '음악교육'에 관한 의식과 의지를 일으키고 키우게 했던 것 같아요(Lee, 2009, pp. 155-157).



[Figure 4] Hong-soo Lee when he was a teacher at Dong-ho Elementary School



[Figure 5] Hong-soo Lee, who directs the Hanul Choir

4. 유학 계기와 준비 시기

이홍수는 1978년 금호여자중학교 재직 시절 ‘음악교육 심포지엄’에서 토마스(R. Thomas) 교수의 ‘음악교육의 새로운 지향점과 방법’ 내용의 강연을 듣고 큰 감명과 충격을 받았다. 그야말로 음악교육에 대한 그의 철학적 사유, 그러니까 예술로서의 음악교육에 관한 사유가 촉발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그의 음악교육 연구과제였던 ‘음악교육이란 무엇인가?’, ‘그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가치와 결과는 무엇인가?’ 등에 본격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그는 본격적인 공부와 함께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유학을 준비하였다.

> 1978년에 겪은 ‘Thomas 충격’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했어요. 금호여자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78년 10월,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악교육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에서 토마스 교수(Manhattanville University)의 강연을 들었어요. 그분은 자신이 수행했던 음악교육 연구인 ‘MMCP(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ject)’를 설명하면서 음악교육의 새로운 지향점과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내 머리는 ‘멍’했어요. 이강숙 교수의 통역을 듣고 번역된 책자를 읽고 있는데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 이럴 수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지금 한국음악교육학회 총무 일까지 맡고 있는데, 부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저 사람들은 음악교육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래만 정확하게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음악교육의 이상과 현실, 경험 및 사고와 익힘 및 행위, 음악예술교육과 음악예능지도 그리고 그 간격, 누가 그런 이상과 이 현실의 간격을 메워야 하는가?’ 고통스러운 생각이 끊이지 않아 밤새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짐했지요. 내가 그 일을 담당하리라고. 그날부터, 오랜 기간 놓고 있었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1980년에 관악고등학교로 옮겨갔어요. 수업 시간 수와 담당업무를 줄여 공부할 틈을 얻을까 해서였지요. 새로 간 학교라 표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수업 사이, 업무 사이사이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이 학교 일이 끝나면 곧장 연세대학교 어학당으로 달려갔어요. 영어 강좌를 들었지요. 합창단 활동을 중단했고, 유학할 학교를 검색하는 일에서부터 작곡집 ‘징검돌’과 ‘송화 필 무렵’을 출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작곡집은 미국의 대학교에 제출할 자료로 필요했고, 또 오랜 기간 작곡해서 모아두었던 동요와 가곡들을 일단 정리해 두고 싶어서 출판했던 것이지요(Lee, 2009, pp. 157-158).

그러던 중에 이홍수는 필생의 과업이 되는 사건을 겪는다. 그것은 고등학교 영어책에 실린 헬렌 켈러(H. Keller)의 “내가 만일 사흘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에서 얻은 영감이었다. 이 사건에서 그의 심미주의 철학의 핵심인 ‘느낌(feeling)’을 포착하게 된다. 그 사건으

로 그는 유학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였을 뿐 아니라, 필생의 과업을 “음악에서 느낌을 갖게 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아름다움과 지고지선(至高之善)의 상태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고 깨달았다. 그는 대학 강의에서 혹은 대중 강연에서 그때의 ‘헬렌 켈러 사건’을 종종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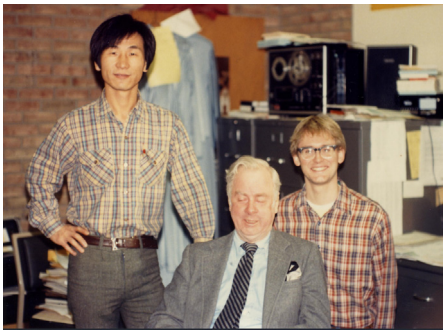
> 그러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실려 있던 헬렌 켈러의 글『만약 사흘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을 읽었어요. 너무나 감명 깊었던지라 음악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글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영어 수업에서 그 글을 이미 읽고 배운 후였지만, 학생들은 그 글에 관한 어떤 인상이나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글 속의 느낌 (feelings)도, 생각도, 의미도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직 대학 입학시험에 나올만한 문장과 문법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날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국어와 영어 수업에서 다루는 어떤 문학 작품으로도, 음악 수업에서 다루는 어떤 음악 작품으로도 ‘느끼고 생각하는 경험과 연습’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은 유학에 관한 내 결심을 더 견고하게 해주었어요. ‘문학 수업과 음악 수업에서조차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정서적 만족과 정신의 고양을 얻게 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성숙하도록 이끌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음악에서 느낌을 갖게 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음악에, 아름다움과 지고지선의 상태에 눈을 뜨게 하는 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지. 등등을 생각했어요. 헬렌 켈러의 그 글이 내 필생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 셈이었지요(Lee, 2009, p. 158).

5. 유학 시기

이홍수는 40세 가까이에 미국의 미시간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강의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영어 공부와 함께 음악과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다. 어렵게 시작한 유학인 만큼, 그는 최선을 다해 학업에 임하였다. 그는 수강 강좌가 수료 학점인 60학점보다도 27점이나 많이 수강하였는데, 이는 음악과 관련된 강좌는 다 듣고 싶은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홍수는 이 기간에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그의 음악교육철학의 학문적 논리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그러나 유학 생활은 정말 힘들었었다.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세탁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의 바지를 태워서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고 연구자에게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홍수는 그때가 배움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직접 연주회 개최, 오페라 참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 미국, 미시간주의 앤 아버(A. Arbor)에 있는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음악대학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음악교육학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초기에 나는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 석사과정에 개설된 음악교육학 과목들부터 수강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부설 어학원(English Language Institute)에서 영어작문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전공 영역에서 음악교육학 이론과 실제, 음악사, 현대음악기법 등의 많은 강좌들을 수강했고, 부전공으로 작곡 (13학점)과 지휘 (13학점) 과목들을 수강했고, 박사과정의 필수과목인 통계학(2학기)과 독일어(2학기)도 수강했어요. 박사과정은 60학점을 수강하면 수료가 되었지만, 나는 87학점까지 수강했어요. … 하지만 공부는 힘든 크기만큼이나 많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음악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음악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가슴은 늘 말할 수 없이 벅차 있었어요. 지도 교수였던 스탠디퍼(J. Standifer) 선생님은 내게 제일 먼저 리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을 읽기 과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악교육철학'을 집중 탐구하게 했어요. 스탠디퍼 교수님을 비롯하여 레만(P. Lehman) 교수님, 프로세스(J. Froseth) 교수님의 음악교육학 강좌들을 수강하는 일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지요. 그분들의 인격과 능력, 경륜은 미국에서도 최상의 경지였으니까요. … 내가 얻었던 또 다른 행운의 하나는 오페라 공연에 참여한 일이었어요. 베르디의 오페라 '팔스타프(Falstaff)'를 공연한다기에 오페라 연습부터 공연까지의 전 진행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 역의 합창단 모집에 응하고 오디션을 거쳐 참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주인공들부터 몇몇 어린이들과 합창단원, 관현악단원 등의 수많은 출연자와 스태프들, 의상 소품 제작자들이 참여해서 오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경험한 귀한 기회였어요. '팔스타프' 오페라 공연(1985. 3. 28.~1985. 3. 31., Power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은 내게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지요(Lee, 2009, pp. 159-162).



[Figure 6] Hong-soo Lee during his Ph. D. studies (The first one on the left)



[Figure 7] Hong-soo Lee in Opera (The first one to the right of the second row)

6. 대학 교수로서의 시기

1)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임용과 대학 생활

이홍수는 유학 과정에 있으면서 1987년 9월 1일 자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유학 생활을 접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1988년 5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대학 교수 생활은 여느 교수처럼, 강의하고, 대학원에서 논문지도하고, 학교의 보직을 맡았었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과 친하게 지냈었다. 이홍수는 연구자에게 그때의 일들을 종종 이야기하였다. 그의 강의는 가장 인기 있었고, 강의평가는 늘 최상이었다. 특히, 그는 연수원에서 실시했던 교장단 연수에서는 최고 인기 강사였다. 또한, 그는 전국의 교사 연수회, 기업의 강연회 등의 강사로 초빙되어 다니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 1987년 9월 1일 자로 임용되고, 첫 학기는 교수님들과 학생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힘쓰는 한편,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논문을 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논문 원고를 우편을 통해 교수님과 주고받으면서 지도받고, 88년 5월에 미국에 가서 심사받았어요. … 초등교육과와 음악교육과 학부생들에게 '음악교육학'의 기초이론과 방법론을 강의한 것이고, 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음악교육원론'과 '음악교육방법론' 강좌를 이끈 것이고, 120여 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6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학위 논문 작성을 지도한 것이지요. 대학에서 담당했던 보직은 초등교육과 학과장을 비롯해서 교육연구원 기획부장, 교육연구원 원장 겸 교과교육연구소 소장(1998~1999), 종합교육연수원 원장(2004~2005) 등이었어요(Lee, 2009, pp. 163-165).



[Figure 8] Hong-soo Lee when he was the director of the Gener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igure 9] Hong-soo Lee to give a lecture at the principal qualification training

2)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한국음악교육학회 활동

이 시기의 이홍수는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를 편찬하며 한국 음악교육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당시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주도하였던 정세문 선생을 도와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심의, 그리고 음악 교과서를 편찬했다.

>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 업무에는 1973년부터 참여했는데, 당시 교육부의 음악과 편수관이셨고, 후에 수석편수관과 편수국장을 지내신 정세문 선생님의 요청으로 장창환 교수님과 윤양석 교수님, 김준수 선생님 등과 함께 제3차와 4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편찬, 심의 등의 일을 했지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제6차와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고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심의와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동아출판사, 두산)를 편찬했어요. 2007년 교육과정 개정 때에는 음악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지요(Lee, 2009, p. 165).

그리고 이홍수는 한국에서 음악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큰 학술단체인 '한국음악교육학회' 발전에도 크게 힘썼다. 그는 이 학회에서 총괄하는 회장은 물론이고 실무를 행사하는 총무 등의 여러 임원을 역임하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학회의 발전과 한국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였다. 이홍수 자신도 이 기간이 그의 생애에서 큰 보람을 느낀 시기라고 하였다. 그의 한국음악교육학회에 대한 애정(愛情)은 타계하는 2026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한국음악교육학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학회로 우뚝 서길 염원하였다.

> 한국음악교육학회 일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학회에는 1973년에 가입했고, 부총무를 거쳐 80년부터 총무직을 맡아 일했지요. 당시 여름방학마다 열렸던 학회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4~5백 명의 교사들이 모였었는데, 그때에는 학회비나 참가비도 받지 않았고, 강의하는 교수들에게 강사료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강의장은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무더위로 찌는 듯했어요. 그래도 교수들은 연수자료를 손수 제작해서 나누어주면서 성심을 다해 강의했고, 교사들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했었지요. 90년부터 4년 동안은 부회장직을 맡아 신계휴 회장님을 보필했고, 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회장으로 일했지요. 부족하나마 학교 음악교육의 이론적, 실제적 발전을 위해 일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 기간이었어요(Lee, 2009, pp. 165-166).

이 시기의 이홍수는 국제적으로도 크게 활약하였는데, 특히 국제음악교육자대회(ISME,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아시아태평양음악교육연구대회(Asia Pacific Symposium on Music Education Research) 등에서 발표 및 해외 학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한국음

악교육학회의 발전을 이끌었다.

국제음악교육자대회에 참가하고, 아시아태평양음악교육연구대회를 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 일이군요. 1992년(7. 26.~8. 1.) 서울에서 열린 ISME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여 기획, 진행, 번역 등의 일을 맡아 했고, 94년(7. 18.~7. 23.) 미국 플로리다(Florida) 주 탬파(Tampa)에서 열린 21차 대회와 96년(7. 22.~7. 2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의 22차 대회에 참가했지요. 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열린 제17차 국제 연구세미나(International Research Seminar, 7.11.~7.17.)에서는 연구발표를 했고, 프리토리아(Pretoria)의 23차 ISME대회(7.19.~7.25.)에 참가하여 세계 음악교육의 경향과 연구 성과들을 보고 들으면서 시야를 넓혔지요. 그러는 동안 리머 교수를 여러 차례 만났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 재직하던 맥퍼슨(G. McPherson) 교수(현지 미국 Illinoise University에 재직 중)와 일본 아이치교육대학교의 타다히로 무라오 교수와 교분을 갖게 되었지요. 제1회 아시아-태평양 음악교육 연구 심포지엄(The 1st Asia-Pacific Symposium on Music Education Research) 그래서 96년 암스테르담에서 맥퍼슨 교수, 타다히로 무라오 교수와 내가 자주 만나 협의하면서 우리 지역 음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97년에 아태음악교육 연구회를 조직했지요.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제1차 연구대회를 계획, 추진하고 경기도 용인시 소재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열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 호주, 캐나다의 음악교육학 교수들과 음악 교사 약 120여 명이 모여 음악교육 연구 성과물과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전통음악 연주를 들으면서 그 멋과 향기를 함께 즐기기도 했지요. 대회에는 워커(R. Walker) 교수(Canad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와 배럿(M. Barrett) 교수(University of Tasmania) 등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참가했었어요. 연구대회는 99년 호주 태즈메이니아(Tasmania)에서의 2차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지요. 나도 2001년(8. 23.~8. 26.)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3차 대회에 참가해서 “자기 느낌 중심의 음악하기”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었지요. 젊은 음악교육자들이 ISME와



[Figure 10] Hong-soo Lee with B. Reimer



[Figure 11] Hong-soo Lee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e middle of the first row)

APSMER 등의 국제적인 연구 모임에 참가해서 세계적인 동향을 보고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Lee, 2009, pp. 166-168).

3) 음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 운동

이 시기의 이홍수는 2003년 한국의 학교음악교육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음악교육 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음악, 미술, 체육 교육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공동 대표를 맡아 '학교 음악교육 정상화 결의대회'라는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Figure 12] Poster of the School Music Education Normalization Resolution in 2003

우리의 학교 음악교육은 2003년에 위기를 맞았지요. 정부가 비논리적이고 부정확한 현실 진단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학교 예술 교과들을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음악교육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협의체를 조직하고, 그에 대처하는 활동을 해야 했어요. 나는 한국음악교육단체협의회 대표와 '음・미・체 교육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아 '학교 음악 교육 정상화 결의대회'를 열거나 관련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면서 그런 위기에 맞서야 했지요. 그러나 '예술 교과 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는 허망한 메아리만 남겼을 뿐이고,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 같아요(Lee, 2009, p. 168).

7. 정년퇴임 이후의 시기

이홍수는 대학교수 정년퇴임 이후에도 꾸준히 음악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강연을 이어갔으며, 음악 교과서 편찬 작업도 계속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테니스와 여행, 거문고 연주하며 활기 있는 노후의 삶을 영위하였다. 사실, 말년의 암 투병 1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는 평생에 건강함을 자랑했고, 노년에도 노익장(老益壯)의 정정함을 유지하였다.



[Figure 13] Hong-soo Lee playing tennis



[Figure 14] Hong-soo Lee playing the Geomungo

또한, 이홍수는 제자들과의 만남인 '또보미' 모임에 즐겨 참석하여 제자들과 음악교육 이야기를 이어갔다. 대외적으로는 그는 음악 교과서 교재곡 창작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이동훈, 김성균, 권덕원, 민경훈, 조성기 등과 함께, 2017년 2월 '한국교육음악창작인회'를 창립하여 적극적으로 동요 보급을 꾀하였다.



[Figure 15] Hong-soo Lee at the 'Tobomi' meeting



[Figure 16] Hong-soo Lee giving a presentation in 2017

Ⅳ. 결론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던가. 그런데 지금에까지 전해지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나 업적을 남긴 인물이나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의 업적은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인류의 위대한 성인인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 제자나 지인(知人)들, 혹은 역사가들이 그들의 생애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그의 가르침과 일생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존재와 가르침은 영원히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혔을 것이다. 한 시대를 주도하던 어떤 인물의 생애사는 후대에 그의 삶과 사상을 전하며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의 그의 활약과 영향력을 알게 하고,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한국의 학교 음악교육은 해방 이후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까지 70년 사(史)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 음악교육의 학회를 대표하는 '한국음악교육학회'도 1956년에 창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학교 음악교육의 발전 역사에 비추어볼 때, 한국음악교육학회는 한국의 음악교육사와 함께하며 발전해 왔다. 특히 학교의 음악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공헌에는 적지 않은 인물들이 있었고, 이홍수는 그중의 한 사람이다. 한국음악교육학회는 그를 홈페이지 연혁에서 "1997년에는 한국음악교육학회(회장, 이홍수)가 주축이 되어 아시아 태평양 음악교육연구 심포지엄(APSMER Asia-Pacific Symposium for Music Education Research)을 설립함으로써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음악교육자들의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n.d.)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생애사와 업적의 정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음악교육사, 그리고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역사적 기록 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점에서 이 연구는 분명 한국의 음악교육자 이홍수의 생애에 관한 이해는 물론이고, 한국음악교육학회 차원의 역사 정리와 그가 활약한 당시의 한국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나아가 위기에 처한 오늘의 학교 음악교육을 성찰하게 한다. 아울러, 한국에도 자랑스러운 음악교육자가 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그의 음악 삶과 실천, 그리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하나의 작은 물꼬를 틀 것이다.

References

Choi, Y. S. (1999). Collecting qualitative data. *Anthropology of Education*, *2*(2), 1-22.

Kim, G. S. (2020). An interview with senior scholars in music education t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footsteps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2), 1-39. https://doi.org/10.30775/KMES.49.2.01

Kim, G. S. (2022). A senior music educator's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Focused on the interview with emeritus professor Hong-soo Le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3), 1-24. https://doi.org/10.30775/KMES.51.3.01

Kim, H. S., & Moon, J. W. (2012). Life-history research method to study creativity in visual art. *Art Education Review*, *44*, 65-94.

Kim, Y. C., & Jeong, J. H. (2021).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for social sciences*. Academy Press.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n.d.). *The history of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Retrieved May 5, 2026, from https://www.kmes.or.kr/?c=1/43

Lee, H. S. (1990). *Modern approach to music education*. Segwang Music Publishing Company.

Lee, H. S. (2015). The justification and duty of a music subject. *2015 Korean Society for Music Education's Summer Conference's Data Collection*, 3-15.

Lee, H. S. (2004). A study on the 50 years of music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 Focused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usic curriculum. *Korea Teachers' University Comprehensive Education Training Institute's Data Collection*, 624-668.

Lee, H. S. (2006). Society activities 50 years, self-reflection and assignme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1*, 1-7.

Lee, H. S. (2009). *Anthology commemorating professor Hong-soo Lee's retirement 'When playing the geomungo together'*. Kyohaksa Publishing Company.

Yoo, C. I. (1998).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Data 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ext. *Journal of nursing query*, *7*(1), 186-195.